

腎膀胱疾患에 對한 論考

鄭 燦 玉



概要

腎을 水藏之王水라 한다. 이 수장(水藏)에는 陽火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眞元之氣를 화생하게 된다. 腎은 先天的으로 타고난 元래의 精(精)을 간직하고 또한 後天的으로 이루어진 各 장부의 精을 받아 간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腎은 藏精을 위주로 하고 封 장하는 것이 그의 생리적(生理的) 기능(機能)이라 한다 기체(氣體)를 交換하는 呼吸과 상응하여 納氣를 위주 하는 呼吸의 근본이 되고 밖으로는 膀胱경과 表裏관계가 되어 수액대사를 조절하고 또 체표의 衛氣작용에 溫을 하고 있다.

신수(腎水)를 내포하고 있는 양화(陽火)를 命門火라고 한다 이러한 수(水)와 화(火)의 평형이 이상이 생길 때는 수(水)가 부족하게 되면 이것을 음허(陰虛)라 하고 또는 元陰虛少라고도 한다

신음(腎陰)이 허소하게 되면 신수(腎水)중에 포함되어 있는 火가 제 위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火不歸元이라고 한다 화가 귀원하지 못하게 되면 위로 상승하여 병증이 발생한다. 그 증은 喘促, 咽痛, 聲啞하고 심하면 음허화동증(陰虛火動症)으로 勞瘵 肺結核 등의 다양한 병증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 반대로 양화(陽火)가 부족하게 되면 水氣가 위로 넘쳐 痰이 되기도 하고 심양(心陽)을 억제하며 폐에도 침범하여 수종(水腫)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복통(腹痛), 산증(疝症), 下利厥冷 및 亡陽多汗症을 발생하여 원기(元氣)가 갑자기 허탈되기도 한다.

또는 心火와 신수의 조절이 잘 되지 못하면 健忘, 驚悸, 不眠, 遺精, 出血, 腫滿, 咳逆, 痰喘, 盜汗症이 발생한다. 또 신(腎)은 精을 간직하여 骨髓를 생성한다. 그러나 신정(腎精)이 허소하게 되면 골수가 그 영향을 받아 骨痿, 脊髓裂 등의 병증이 발생하게

■ 신, 방광질환에 대한 논고

된다 신(腎)은 요부(腰部)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腎氣가 허약하면 요통 脚膝無力이 발생한다. 신은 귀화적인 표출구를 귀로 열어놓고 있다.

그러므로 신기(腎氣)가 허약하면 耳鳴, 耳聾症이 나타나게 된다. 눈의 검은 눈동자는 신수에 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허하게 되면 瞳孔散大 및 축소 혹은 백내장증이 생기게 된다 또는 방광과 기화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신음이 허하면 火水작용을 잘하지 못하게 되어 소변불리증(小便不利症)이 생기게 된다 (滋腎丸證)

또한 신양이 허하여도 소변불리증이 발생하게 된다 (八味丸症)

1. 腎과 膀胱

신(腎)은 음기인(癸水)을 타고나고, 방광은 양기(陽氣)인 임수(壬水)을 타고났다 신(腎)의 府는 방광이며 방광의 臟은 신이고, 신의 表는 방광이며 방광의 裡는 신이라고 한다. 이것은 경락적 기화생리로서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또한 신은 足少陰經에 속하니 소음의 上에는 열기가 작용하여 열기는 신경의 본기가 되고 증기로서는 방광의 太陽寒氣가 나타난다

방광은 足太陽經에 속하니 태양의 上에는 寒氣가 작용하여 방광의 본기는 한기가 되고 증기로서는 신경의 소음경 열기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신경의 본기인 열이 많으면 증기인 방광의 한기가 조절하여 음양장부의 表裏관계로 생리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만일 위와같이 조절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신장의 본기인 열이 부족하거나 혹은 방광의 본기인 한기가 많게 되면 질병이 발생한다

방광은 비록 수분을 저장하고 있기는 하나 기화조절이 잘 안되면 소변배설을 못하므로 氣化則能出이라고 하였다. 즉 방광이 담당하고 있는 排尿관계에서 小便頻數症, 尿崩症, 소변불금증, 夜尿과다증 소변불통증 등이 모든 신장기능의 허와 실 또는 한과 열의 부조절로 인한 것을 임상면에서 경험하고 있다

이밖에 비뇨기계 병증이 흔히 방광에 속하여 수뇨관에 감염도 병증도 습열에 속하고 있어서 清熱利濕의 치법을 응용하고, 방광결석증인 경우도 청열이수법으로 임상에서 시도하고 있으나 만성일 경우는 신양과 신음에 대한 치료를 고려하지 아니하면 완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腎과 脾

腎臟의 양기는 인체 전신의 양기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므로 임상에 있어서 신양이 부족한 환자는 晨泄 또는 대변이 흔히 묽게 나오는 증을 일으킨다. 이때에 이것을 脾腎兩虛라 하거나 혹은 脾腎陽虛라고도 한다.

치료에 있어 脾를 보하여 주는 약재에 신양을 보충하는 재료를 겸용한다 이것을 허수미선생은 補脾不如補腎이란 말을 하기도 하였다. 즉 무배란성 자궁출혈증에 단순한 脾統血이란 理論에 입각하여 치료한바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양을 보하는 菟絲子, 補骨脂, 巴戟, 음양곽 등의 약재를 겸용할 때 지혈은 물론 난소기능도 회복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老人性食慾減退症에도 비위만 보하기 보다는 여기에 보신을 겸하면 속히 회복되는 것을 임상에서 경험하고 있다

3. 신장(腎臟)의 역할

腎臟은 복부의 후벽에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로 左右에 1개씩 있으며 우측의 신장이 약간 낮은 위치에 있다 크기는 성인의 주먹보다 약간 작고 무게는 약 130g인데 완두콩 모양을 하고 있으며, 외관은 적갈색이다 신장을 옆으로 잘라보면 바깥쪽을 신피질이라고 하고 신동맥, 신정맥, 모세혈관이 있고 요세관이 있다 안쪽을 腎髓質이라고 하며 요세관, 집합관으로 되어 있다.

신장은 尿를 만들어 배출하는 곳이며 체내에서 생긴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영양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지만 탄수화물과 지방은 체내에서 에너지원이 되고 이산화탄소, 물이 주로 배설된다.

그러나 단백질은 체내에서 소비되고 나머지는 肝臟에서 요소가 된다 이 요소를 배설하는 것이 신장의 주요한 일이다. 노폐물의 처리는 혈액을 여과하면서 이루어진다

신소체는 보우만씨 주머니와 사구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구체는 직경이 약 0.2ml 인데 이 끝에 요세관이 이어져 있고 여기에서 요(尿)가 생성된다. 신장은 1일 150ml 정도의 원뇨를 만드는데 소변이 한방울도 나오지 않으면 죽어버린다.

신장의 기능으로서는 요소를 배출하고, 그리고 산염기의 평형을 조절하고 있다. 인간의 몸은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의 이 네가지 이온의 조절에 의해 세포내와 세포외의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 신, 방광질환에 대한 논고

혈중의 이온량이 늘면 자동적으로 신장으로 배설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혈중의 칼륨값과 나트륨값이 높아지면 신장기능이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신장은 혈압에도 관계하고 있다 水克火 즉 신장 속을 흐르는 혈액은 심장에서 직통한 것인데 대량의 혈액이 강한 압력으로 심장에서 대동맥을 통해 신장의 동맥으로 들어온다 신장을 흐르는 혈액량은 심장에서 나오는 전 혈액량의 약 5분의 1이므로 신장크기에 비해 매우 많은 양이다 신장도 흐르는 혈액량이 적어지면 혈압이 상승한다. 이것을 신성 고혈압이라고 한다

또 쇼크를 받거나 심장이 약해지면 혈액은 心臟에서 腎臟으로 직통하므로 신장 속의 혈액이 나빠지거나 혈압이 낮아진다 그래서 사구체도 요세관의 내압이 내려가 尿의 여과가 적어지고 요세관의 재흡수가 비교적 커지므로 요의 양이 적어진다 尿의 양이 적어지면 부종이 생기거나 요독증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신장속의 사구체에 염증을 부르는 급성 사구체 신염의 경우에는 안정이 최우선이다 수반증상으로는 부종, 요통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황탕에 朮이 들어간 마황가출탕(麻黃加朮湯)이 적당하다 또 목마름, 요량감소,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더해진 경우에는 오령산(五苓散)을 쓴다 한편 위내정수, 어지러움증, 신경질, 심계항진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영계출감탕(苓桂朮甘湯)을 사용한다

만성신염, 네프로오제 등의 신염에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합방한 시령탕(柴苓湯)이란 처방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도 좋고 스테로이드제와 병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염으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때에 이뇨제를 써서 혈중의 독소(BUN, 크레아티닌 등)를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안된다. 또 혈중의 이온도 균형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

예로부터 이를 위한 민간약이 전해져 내려왔다 우선 덧나무(접골목)10g, 개오동나무 10g, 옥수수 수염 1g, 옥수수 알1g을 달여 차처럼 복용하면 좋을 것이다. 또 팔을 잘 삶아 팔과 그 국물을 마셔도 좋다. 또 신장병에 많이 쓰는 것이 잉어다 잉어를 솔로 잘 삶아 매일 먹으면 소변도 잘 나오고 신염이 좋아진다. 그리고 발바닥에 용천이라는 뜬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잘 자극하면 이뇨효과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쌀알 크기로 썬뚝을 아침 저녁으로 3번씩 뜬다 신장병 치료에 있어 한방 방제 속의 칼륨, 나트륨의 함유량을 알아두면 편리하다. 신 질환에 쓰이는 한방 방제의 1일분 탕액속의 칼륨 함량은 0.3~4.5mEq/day이다 칼륨의 1일 최소 필요량은 24~25mEq/day이고 식사 섭취량은 50~150mEq/day라고 하므로 한방 탕액 속의 칼륨량은 소량이다 나트륨 함량은 0.2mEq/day이하인데 탕제로서는 녹여

나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장병환자는 칼륨, 나트륨의 혈중농도를 검사하면서 투약하면 한방방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辨症施治法

(1) 腎虛症은 아직 늙지 않았는데 體力이 衰弱하여 나타나는 成長發育장애, 遺精, 陽痿不妊, 不眠, 健忘, 기력감퇴, 腰脊痠痛, 膝經軟弱無力, 齒牙稀疎 및 동요, 耳鳴, 耳聾, 탈모, 早白髮, 尿小遺尿閉, 浮腫, 晨泄 등의 腎虛症을 나타낸다.

① 處方：鹿茸大補湯

黃芪, 龍眼肉, 杜沖, 人蔘, 白朮, 白茯苓, 白芍藥, 肉桂, 鹿茸, 附子炮, 石斛 各 4 5g, 當歸, 川芎, 熟地黃, 破古紙, 枸杞子, 五味子, 卜分子, 蓮子肉 各 3g, 乾干, 肉桂, 灸甘草 各 2g, 生薑 3片, 大棗 2介

② 用法：1日 2貼 再湯 3回 服用

(2) 腎陽虛症은 즉 陽氣不足에 糖尿症 發病으로 나타나는 기본증 외에도 畏寒, 四肢冷, 虛汗, 自汗, 夜尿多, 尿清長, 嘔 便溏, 發起無力, 早漏, 脈微弱, 舌苔淡薄 등 응용처 방이다

① 處方：補腎丸

龜板酒灸, 白于蚕灸 各 160g, 鹿茸, 人蔘, 山藥, 麥門冬, 蓮子肉, 魚腥草, 五味子 各 100g

附子炮, 肉桂, 知母鹽水炒, 黃柏鹽水炒, 甘草 各 60g

② 用法：上記 藥 粉末 梧子大 糊丸 또는 蜜丸 作 1日 3回, 1回 50~70丸 每 食間 溫水 服

특히 당뇨병(糖尿病)에는 맥문동탕(麥門冬湯) 수에 服用 可 大效함

5. 요로결석(尿路結石)

요로결석은 인류(人類)의 역사(歷史)가 시작된 이후 있어왔던 병으로서 현재에도 특히 성인(成人) 남성(男性)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결석(結石) 때문에 소변을 보는데 많은 고통과 장애를 일으키는 골치 아픈 병이다 신장 속에서 사구체에 의해 여과된 원노가 요세관에서 재흡수되고 요(尿)가 생성되지만 그 요(尿)가 집합하는 신우 부근에서

■ 신, 방광질환에 대한 논고

소변(小便)속의 鹽成分이 결정화(結晶化)되어 결석을 만든다.

결석(結石)의 90%이상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수산염 또는 인산염 또는 그 양쪽인데 그밖에 시스틴이나 요산 등의 유기성분이다. 원인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예컨대 칼슘 함유 식품의 다량섭취나 골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침대생활이나 암의 골 전이, 골수종 등의 골질환과 원발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에 의한 고칼슘혈증, 저인혈증(약 70%정도 신결석을 볼 수 있다)과 위궤양을 치료할 목적으로 많은 미네랄을 장기간 섭취한 경우와 제산제를 투여한 환자와 비타민D과잉증, 그밖에 남성 호르몬의 과잉, 사회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약물에 의한 장애 등 많은 요인이 결석형성의 요인이 된다.

배뇨 장애가 없을 때에는 통증이나 그밖의 자각증상이 없으므로 발견이 늦어진다. 회사 등 집단검진을 통해 위의 X-ray 촬영을 했을때 발견된다거나 요통을 일으켜 정형외과에서 X선을 찍어보고서 발견했다는 사례가 많으며 작은 결석을 가진 사람은 매우 많다

6. 방광염(膀胱炎)

(1)방광염이란

소변(小便)이 마려워 화장실에 가도 50~100ml정도의 소량의 소변밖에 나오지 않고 또한 나오려고할 때에도 매우 심한 통증이 있거나 불쾌감이 있으며, 또 다 나온 후에도 콧 쭈시는 듯한 아픔이 있다. 그리고 소변이 다 나왔는데도 아직 조금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자주 든다

이런 증상이 방광염(膀胱炎)의 특징(特徵)이다 자주 소변이 보고 싶어지거나 아프거나 잔뇨감(殘尿感)이 있는 것은 대개 요도에 세균이 증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방광염이 되는 첫 번째 원인이다

요로감염증은 오줌소태라 하여 특히 여성에게 많으며, 냉방이 잘된 방에 오랫동안 지내거나 차가운 과일을 많이 먹어 몸이 식어버렸을 때 일어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요도 부근에 잡균이 많이 생식하고 있으며 또 요도도 짧기 때문에 아주 순식간에 방광까지 잡균이 들어가 버린다. 방광속에서 균이 증식하면 요는 혼탁해져 혈액이 섞이는 수도 있다. 요의 혼탁을 두 번으로 나눠 검사하면 두 번째 후반에 더욱 뚜렷해진다. 요검사를 하면 많은 농구, 세균, 적혈구, 방광의 내막에서 벗겨진

세포인 편평상피세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치료 결과는 양호하여 일반적으로 1~2주면 완전히 낫게 된다. 초기에 심할 경우에는 항생물질을 복용하면 좋아진다

방광에서는 요관에서 보낸 소변이 물구나무를 서도 역류하지 않도록 방지판이 붙어 있는데 세균처럼 작은 것은 염증의 병소를 만들면서 점차 요관으로 올라가 결국에는 신장의 요 집합 장소인 신우에 도착하는데, 여기에서도 염증을 일으켜 발열을 초래하고 빈뇨와 배뇨통이 더 심해진다. 그리고 신장의 수질부에도 염증이 생겨 요세관에 장애가 일어나고 장애는 피질부에도 미쳐 결국에는 위축신이 되어 만성 심부전으로까지 발전하는 무서운 병이다.

요로감염증의 발생부위에 따라 요도염, 방광염, 신우신염이라는 병명이 붙어 있으므로 독립된 것은 아니며, 각각 요도라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조기에 이상을 발견하여 치료해야 한다.

(2) 방광염(膀胱炎)의 한방요법(韓方療法)

요로감염증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한방 처방으로는 저령탕(猪苓湯)이 있다 요로결석에도 이용하지만 방광염에도 뚜렷한 효과가 있다. 항생물질과의 병용도 좋다.

방광염의 경우 빠르면 하루 정도면 자각 증상이 가신다 또 혈뇨가 나오는 경우라도 저령탕 속에 있는 아교의 지혈작용으로 출혈이 그친다. 1주일 정도면 요검사를 해도 세균은 볼 수 없게 된다.

신우염인 경우에는 장기간 복용하면 좋을 것이다 방광염에 좀더 전문적인 약으로는 용담사간탕(龍膽瀉肝湯)이라는 약이 있다. 당귀, 천궁, 작약, 지황, 박하 앞으로 혈액 순환을 좋게하고 몸이 찬 상태를 풀어주며, 황금, 감초, 산치자, 방풍, 용담으로 염증을 제거하고 황련, 황백, 연교로 세균을 죽이고, 목통, 차전자, 산귀래, 택사, 어성초, 의이인으로 이뇨효과를 올리는 처방구성을 하고 있다. 여성의 방광염에 잘 듣는 처방이다. 또 여자(女子)의 경우에는 저령탕과 용담사간탕의 복용에 따라 불쾌감이 없어지는데, 세균이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당귀작약 산을 복용하여 몸의 순환을 좋게 하고 소변이 잘 나오게 해야한다.

가 主治 - 急性 膀胱炎 小便不通 不利 血尿 尿路 感染症

• 處方 . 猪苓湯 - 猪苓, 澤瀉, 木通, 白茯苓, 活石, 三白草(어성초) 各 三錢
阿膠, 甘草 各 一錢 五分 보통 1~2제로 大效 完治됨

■ 신, 방광질환에 대한 논고

- 用法 · 1日 3回 每食間服
- 飲食禁忌 - 鷄, 猪, 酒, 커피, 비린生鮮 등

나. 主治 - 男女 尿道 膀胱炎, 腎盂腎炎, 小便不利, 오줌소태 등

- 處方 · 加味木通湯 - 澤瀉 三錢, 木通, 活石, 三白草 各 二錢 白芍藥, 生地黃, 車前子, 瞿麥, 篇蓄, 梔子, 甘草 各 一錢 이상 1~2제 治療, 慢性이면 4~5제 可
- 用法과 飲食禁忌는 前方과 同一.

다. 主治 - 慢性腎臟, 膀胱炎 특히 婦人肝濕熱 陰痒瘡

- 處方 · 龍膽瀉肝湯 - 苦參 三錢 土茯苓, 草龍膽, 어성초, 蒼朮, 柴胡, 木通 各一錢 五分 車前子, 赤茯苓, 白蘚皮, 生地黃, 當歸, 梔子, 黃芩, 甘草 各一錢

上記 處方 血液循環을 돕고 消炎, 鎮痛, 抗菌, 利尿 作用을 돕는 處方으로서 各者 體質 症狀에 參酌 使用바랍니다.

(學術委 副委員長 光州市 南區 西2洞 66-6 新城院韓藥房 ☎ 062-672-1210)

상식메모

心이 實하면 근심하거나 놀라거나 괴상한 꿈을 꾸고, 心이 虛하면 魂魄이 飛揚하기 때문에 複雜한 꿈을 많이 꾸게 된다. - 寶鑑 -